

고흥군, 민간개발 시험발사체 국내에서 발사 최초 성공 ‘꽤거’

대한민국 우주발사체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 가속화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지난 5월 28일 밤 11시 50분 고흥군 봉래면 염포마을 일원에서 국내 민간 우주발사체 기업 ㈜우나스텔라(대표 박재홍)가 자력으로 자체 개발한 소형 발사체 <우나 익스프레스 1호기>의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사는 민간 기업이 독자적으로 설계·제작·운용한 시험발사체를 국내에서 성공적으로 발사한 최초의 사례로,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의미 있는 성과다.

이로써 고흥군은 민간 우주기술의 실증과 상용화를 위한 핵심 거점으로서의 위상을 본격화하게 됐다.

우나스텔라는 2022년 창립된 민간 우주발사체 기업으로, 지난해 3월 전남도 및 고흥군과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입주 협약을 체결했으며, 향후 국가산단이

준공되면 산단 내 소형 발사체 제작 및 연구개발을 위한 제조시설을 입주·운영할 계획이다.

우나스텔라가 개발한 <우나 익스프레스 1호기>는 길이 9.45m, 총중량 2톤, 추력 5톤급 엔진을 탑재한 소형 발사체로, 이번 시험에서는 총 10km 비행한 후 해상에 안전하게 낙하하며 성공적으로 발사 캠페인을 마무리했다.

이번 발사는 염포마을회, 나로도 어민회, 고흥연안자망협회 등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함께 우주항공청, 전남도, 고흥군, 고흥경찰서, 고흥소방서, 여수해양경찰서,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육군 제7391부대 등 관계기관 100여 명의 유기적인 지원 속에서 안전하게 추진됐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발사 현장을 직접 찾아 “우주를 향한 민간의 첫 발걸음이 고흥군에서 내디딘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



라며, “우나스텔라의 도전과 성공에 6만 군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민간 우주기업이 안정적인 연구개발과 상업적 진출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적의 인프라와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흥군은 오는 2031년까지 총 1

조 6천억 원을 투입해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발사체기술사업화센터, 민간발사장, 북한안보우주센터, 사이언스컴플렉스 등 우주산업 핵심인프라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대한민국 우주발사체 산업의 중심지로 확고히 도약할 방침이다.

고흥/박도일 기자



스릴 만점, 곡성 대황강모험시설 개장

하천 위 횡단하는 익사이팅 레저, 5월부터 운영 시작

곡성군(군수 조상래)은 최근 곡성군 죽곡면에 있는 강빛마을 앞 도로변 산책로 정비와 부족했던 교육장 및 편의시설을 갖추고 5월부터 대황강모험시설의 운영을 시작한다고 28일 전했다.

죽곡면 강빛마을에 있는 대황강모험시설은 케이블로 연결된 다리(총길이 216m)로 중간에 짜릿하면서도 모험심을 길러주는 특별한 코스인 인디아나브릿지, 체스브릿지, 원반브릿지 등 모두 8가지의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지난해에는 이와 같은 짜릿한 경험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도전 정신과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고 또 자신의 한계를 시험해 볼 수 있도록 체험관광상품인 “곡성챌린지”프로그램 중 하나로 시범 운영하여 참여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았다.

군 관계자는 “출렁이는 케이블에 안전고리를 걸고 걸어가며 색다른 모험을 경험하고 하천 위를 횡단하는 체험시설은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

렵다”라며 “곡성을 찾은 많은 관광객이 도전하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대황강을 가로질러 설치된 모험시설을 체험하다 보면 다리 아래로 눈부신 햇살을 머금고 흐르는 강물과 멀리 보이는 산속 강변의 여유가 넘치는 풍경에 잠시나마 복잡한 일상에서 벗어나는 해방감을 만끽할 수 있다.

또한 모험시설 바로 아래에는 도로변 빗꽃 나무를 따라 걸을 수 있는 산책로 길이 조성되어 있고, 인근에 크고 작은 소공원이 있어 휴식을 하며 잔잔히 흐르는 대황강을 배경으로 사진 찍기에도 좋은 곳이 많다.

조상래 곡성군수는 “대황강모험시설은 도전 정신과 모험심을 길러주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서로 응원해 주며 하나가 될 수 있는 체험시설이다”라며 “관광, 레저, 스포츠를 결합한 익사이팅 코스로 누구나 즐길 수 있고 잊지 못할 추억이 남길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곡성/이정수 기자

강진군이 오는 8월까지 강진읍시장 종합동 및 수산동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도비 6억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10억원이 투입되며, 상인들과 지역민의 이용 편의성 제고와 안전한 시장 환경 조성으로 시장상인과 이용객이 만족할 수 있는 시장으로 전환된다.

강진읍시장은 오랜 역사와 함께 강진읍 지역상권을 지탱해 왔으나, 2010년 시설현대화 사업 이후 화장실 등 편의시설 노후화와 어두운 조명, 열악한 바닥 상태, 배수 불량 등으로 고객 불만과 상인들의

강진읍시장 새단장 밝고 쾌적 안전한 시장으로 변화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리모델링 및 환경 개선 경제활성화까지

영양 여건이 악화되고 이용이 불편했다.

이에 따라 강진군은 시장의 내·외부를 정비할 계획이다. 화장실 3개소 리모델링(종합동 2개소, 수산동 1개소)으로 쾌적한 위생환경을 조성하고 어둡고 칙칙한 점포 내·외벽을 밝고 통일감 있게 도색한다. 점포 LED 조명 교체를 통해 환하고 생기있게 변화를 주고 전열 설비 및 소화시설 설치, 소방안전을 위한 로고젝터 설치로 사고 예방 체계 강화 등 기초 안전시설 개선

을 통해 시장의 전반적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특히, 강진읍시장 수산동 특성에 맞게 환경을 개선한다. 이를 위해 수산동 바다 방수 작업 및 배수관 정비로 악취를 제거, 다량의 물 사용에 따른 낡고 녹이 슨 스틸그레이팅 교체, 중앙 가판대 철거 후 수산물을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는 공동처리장 조성 등 수산동에 특화된 정비를 추진한다.

향후 수산동 빈점포 정비 및 시설물

개·보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상인이 만족하고 관광객이 찾는 체류하는 시장으로 만들 계획이다.

강진읍 강진군수는 “이번 강진읍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15년만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시장을 만드는 것과 동시에 외부 관광객도 찾는 활력 넘치고 머무는 공간으로 변화시켜 생활인구를 증대시키고 침체돼 있는 강진을 상권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시장 상인들과 협력·소통을 통해 공사 기간 동안 불편을 최소화하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진/손경설 기자

화순군, 디딤씨앗통장 가입 아동 집중발굴 기간 운영

차상위계층 아동까지, 본인 적립금 2배 매칭 지원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29일 취약계층 아동의 초기 자산 형성 지원강화 사업인 디딤씨앗통장 지원 대상의 확대에 따른 가입 아동 발굴을 위해 6월 5일까지 집중발굴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디딤씨앗통장은 취약계층 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필요한 학업·취업·주거 마련 등 초기비용 마련을 위하여 정부에서 연중 운영하는 아동자산형성 지원 사업으로 본인 적립금 월 5만 원 내의 범위에서 2배로 매칭하여 정부가 최대 월 10만 원까지 지원하여 적립되며, 적립금은 18세 이후 자립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디딤씨앗통장 가입 대상이 17세 이하 기초수급자 및 보호 아

동에서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아동까지 대폭 확대되었다. 이에 화순군은 미가입 아동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전개하고 있다.

특히 이번 집중발굴 기간에 미가입 아동에 대하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대별로 안내문 우편 발송 및 문자 통보를 통해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신규 가입을 희망하는 아동 또는 보호자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가족정책실 아동친화팀 ☎061-379-3561에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화순/김중환 기자

‘청렴을 약속합니다’ 광양시, 다섯 번째 청렴서한문 전달

정인화 시장, 부패취약분야 업무 상대방에게 청렴서한 직접 전달

광양시는 지난 5월 27일, 정인화 시장이 부패취약분야로 분류되는 업무의 상대방에게 다섯 번째 ‘청렴서한문’을 직접 전달했다고 29일 밝혔다. 청렴서한문 전달은 기관장이 청렴 실천 의지를 공식적으로 표명하고 민원인과 공직자가 체감할 수 있는 청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연중 추진 중인 부패방지 시책의 일환이다.

청렴서한문에는 ▲품품 및 항목 제공 금지 ▲계약 및 업무처리 과정의 투명성 확보 ▲공정 경쟁과 상호 존중 기반의 협력 ▲위법·부당한 요구에 대한 신고 안내 등 구체적인 실천사항이 포함돼 있다.

이날 서한문을 받은 공사 업체 관계자는 “시장님이 직접 청렴 메시지를 전달해

주셔서 광양시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더욱 실감된다”며 “청렴한 광양시 만들기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정인화 시장은 “청렴서한문 전달은 단순한 문서 전달을 넘어 청렴 행정에 대한 시민과의 약속”이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 환경을 조성하고, 전 직원이 청렴 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광양시는 이번 청렴서한문 전달을 포함해 다양한 부패방지 시책을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반부패 청렴교육, 외부 업무 상대방 대상 청렴해피콜 만족도 조사 등 종합적인 청렴시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광양/신선호 기자

담양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법정보수교육 추진

담양군은 지난 29일 담빛농업관 3층 대강당에서 담양군사회복지사회회(회장 양해주)와 전라남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박은주) 주관으로 민간 사회복지사 80여 명을 대상으로 법정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인권감수성과 차별이여기 ▲뉴스로 만나는 인권이야기III ▲7가지 명제로 알아보는 강점관점 사례관리 내용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사회복지 현장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은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해 참석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다.

정철원 담양군수는 “오늘 보수교육이

단지 법률지식만을 전달하기보다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성장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소통의 장을 마련해 민간과 공공이 함께 성장하는 복지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담양군은 매년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료와 보수교육비를 지원하고 지역사회복지인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통해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하는 종사자를 격려하고 있다.

담양/이종욱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이 작품은 국민 김라온님이 제안한 공익광고입니다. - 2024 정부광고 크리에이티브 페스티벌 수상작

독서로 찾는
강력하고 건강한
도파민

저를 참하고 있는 것일지도
최대한 담백하게 사는 것
내가 창조하는 삶을 살아갈 것
지금처럼 버티다 보면 이 순간이
한들수목 나 자신을 사랑할 것
햇살 같은 마음
내가 나를 알아봐 줄 것
나보다 원한 사람을 만나도 기쁘게 할 것
나의 가치를 내가 찾을 것
특별함·을당신이 생각하는 것 보다 누구보다
예쁘다고 다 끌리는 게 아니고
마음먹기에 그가 얼마나 따뜻한 사람이었는지 느껴진다.
우리는 몇 장짜리 책일까
기억스레 생각
평범함의
정말이다. 공전으로 맞물려
마음이 편해진다면
몇 장이나 될까,
현재의 미래와 걸러낼 수 없는 것이긴 하지만
평화적인
고유의 색을 가능 하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
미래의 현재가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 되면
기회는 위기 속에서 찾아온다는 걸
엔 다 잘될 테니까 내가
그 자체만으로도
좋은 거라면
언제나 우연치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서울특별시교육청

독서는 우리의 문해력과 사고력을
키워주는 큰 자산입니다.
책을 통해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진정한 '나'를 만듭니다.
소셜 미디어와 숏폼에서 얻은
일시적인 자극 대신,
독서라는 건강하고 긍정적인
자극을 선택해 보세요.



이 공익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되었습니다.